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청주의료원, 국비 등 72억원 투입... 2022년 개원 목표
장애아동 3000여명 지속·통합적 재활치료의 길 열려

충북도는 청주의료원에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건립된다고 밝혔다.
청주의료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 하반기 공모에 응모한 결과 선정심사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충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도내 약 3000여명의 장애 아동들이 지속적이면서 통합적인 재활치

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아 재활 치료는 영유아기 집중치료는 물론 학령기 및 청소년기에 거쳐 생애주기별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장애아동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재활치료를 받는 불편이 많았다.
치료 외에 다양한 사례관리, 가족지원, 교육연계 등 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아동이 성장할수록 더욱 불안하고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았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그동안 오로지 부모와 가족의 책임에 맡겨졌던 돌봄·상담 및 교육·체육 분야에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함으로써 '치료-교육-복지 통합시스템 모델'을 구축하는 등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체계를 공공으로 차원에서 구축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충청북도는 2022년 개원을 목표로 국비와 지방비 등 약 72억 원을 투입하여 청주의료원 내에 지상6층, 낮병동 20병상 규모의 공공어린이 재활 의료

센터를 건립하고 청주의료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는 검사와 진단, 재활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일상 동작훈련실, 전기치료실 등 전문 재활치료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각종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도 배치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센터 건립으로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아 재활치료에 대한 공공의료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지역아동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아동센터 역할과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충북도의회 지역아동센터 역할·개선방안 논의

3일 간담회... 코로나19 취약계층 아동 돌봄 모색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형용)가 3일 '충북지역아동센터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형용 위원장과 이숙애 부위원장, 장선배 의원, 김진현 지역아동센터 충북도연합회장장과 각 시·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도 최성희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도 복지정책과장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추진상황 설명회를 시작으로 김양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충북지부 정책위원장이 '코로나시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중요

성, 지역아동센터 발전을 위한 타시설과의 차별 해소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윤종원 지부장은 "최근 취약계층 아이들 돌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역할을 지역아동센터가 하고 있다"며 "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가 파견과 인력보충,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용 위원장은 "충북도는 아이돌봄을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 복지·진로 지원 정책 직접 제안한다

2020 충북꿈드림청소년단 운영보고

충청북도는 지난달 22일 청주 우리 문고 창작공간에서 '2020년 충북꿈드림청소년단 운영보고 및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충북꿈드림청소년단은 도내 시군 대표 학교 밖 청소년 참여모임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견을 담은 정책 제안과 관리 침해모니터링 사례 발굴,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각 시군 대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충북꿈드림청소년단 활동 사항을 보고하고,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과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장, 시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장에게 학교 밖 청소년 입시지원 전문성 강화 등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행사로 진행했으며, 이날 2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송출했다. 청소년들의 참여도 향상을 위해 영상 시청 중 퀴즈 답변자 10명을 선발해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했다.
박현순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제안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달 22일 '2020년 충북꿈드림청소년단 운영보고 및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가졌다.

충북도 내년 예산안 '5조 8382억원' 편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등에 2조 3055억원 투자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당초예산 보다 7323억원(14.3%)가 증가한 총 5조 838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12월 도에 따르면 호우 재해복구 잔여 사업비 반영 등으로 국고보조사업이 급년대비 29.8%로 대폭 상향된 오는 2021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1년도 예산안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반영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및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추진사업의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과 시·군의 확장적 재정운영 동참을 위해 도비사업 부담률 조정을 통한 경제활성화 사업에 재투자에 중점을 두었다.
예산 증가율도 지난 2018년 8.1%에서 2019년 9.5%, 2020년 11.5%, 2021년 14.3% 등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내수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 도세의 증가전망이 최근 5년치 평균인 10.6%보다 훨씬 못 미치는 3.8%로 예상되고 지방교부세도 올해 대비 2.3%가 감소되는 등 재정운용이 어려운 상

황이기에 일부 주요 투자 사업은 보류 또는 연기했다.
내년도 중점 투자사업은 크게 여섯 가지 사업으로 추진한다.
먼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군 대표 시설투자사업 지원 등 충북형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추어 지역 주도 뉴딜사업에 2381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바이오, 화장품, 수소 등 핵심 미래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충북 경제 회복 지원사업으로 1830억원을 포함했다.
충북형 농시 및 오송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기반시설 정비(SOC)와 지난 8월 발생한 호우·태풍피해 잔여

사업 등의 마무리를 위해 8493억원을 반영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청년들의 취·창업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조 3055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주민밀착형 생활SOC 사업의 확충 및 지역 교우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 등 문화·관광·체육 기반 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유기농 등 미래산업 육성지원과 청풍명월 충북 실현을 위해 9659억원을 편성했다.
도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충북도민 치매인식·관리사업 실태 종합토론회

충청북도와 도 광역치매센터는 10월 29일 '충북도민의 치매인식과 치매관리사업 실태 종합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1년 충청도민이 희망하는 치매관리사업, 한 발 더 다가서는 치매정책'이라는 주제로 도민 37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치매인식 정도와 치매안심센터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치매안심센터, 공립요양병원 등 유관기관 종사자 1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 광역치매센터 김시경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고, 권용정 사무국장이 조사결과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전문가 지정 토론에서는 충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환 교수(치매위험요인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대응 방향),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김봉정 교수(지역보건계획과 연계된 대응전략),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이화정 센터장(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된 대응전략),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따른 대응전략), 충청북도 보건정

책과 어경숙 팀장(충청북도 치매관리사업 방향)이 참여해서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한편 이번 도민의 치매인식정도 조사와 치매안심센터 이용 실태조사에서는 충청도민의 53%가 치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68%는 치매교육을 희망한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만족도에서는 조사대상자의 82%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접근성이 61%, 환경부문 73%, 친절도 부문 85%에서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을 보였다.
또한 도민이 희망하는 교육부문의 주요 키워드는 '치매예방', '대처', '돌봄방법', '가족대응' 등이며 향후 우리 도에 바라는 치매관리사업은 '치매예방교육', '치매프로그램', '서비스홍보', '가족지원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코로나19시대에 우리 도가 치매관리사업에 관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제천시 “아이 셋 낳으면 5150만원” 청주시, 7개 기관과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약

내년부터 출산지원금·주택자금대출금 지원 강화

제천시가 총 5150만원의 주택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9일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새 인구증가 정책으로 주택자금 지원사업을 벌일 것”이라며 “아이 셋을 낳으면 시가 총 5150만원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출생아 가정에 주는 출산지원금을 더 강화하고 시가 출생아수에 따라 주택자금대출금을 대신

값이주겠다는 것이 새 출산 유도 정책의 골자다.

앞으로 첫째아를 낳은 가정은 150만원, 둘째아는 1000만원, 셋째아는 4000만원의 주택자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명의 자녀를 낳은 가정은 총 5150만원에 달하는 주택대출금을 시 지원금으로 총당할 수 있다.

주택자금지원금은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 받는 주택자금지원금은 출산 가정의 주택자금 대출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출산축하금으로 불렀던 출산자금지원금도 올리기로 했다.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다. 내년부터 제천 지역 출산 가정이 받는 출산자금지원금은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는 800만원, 셋째아는 3200만원이다.

시는 앞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2000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새로운 인구정책 수립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

둘째아의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은 2년 동안 4회 분할지급하고, 셋째아 관련 지원금은 4년 동안 8회로 나눠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번 인구 정책에 드는 예산을 시행 4~5년 후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천 시장은 “그동안 매년 40억원의 출산장려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인구는 계속 주는 등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예산을 30억원 정도를 추가로 들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범죄 안전도시 조성 총력

청주시가 청주권 경찰서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 안전도시로 거듭난다.

시는 지난달 27일 청주흥덕경찰서와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범덕 청주시장, 이상수 흥덕경찰서장 등 기관 관계자 5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CCTV통합관제센터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흥



청주시는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보호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경찰서 등 7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덕경찰서는 재난 등 사건·사고 발생 시 현장 통제 등을 지원하게 된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올해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 질도 현장 등을 발견해 경찰서에 신

고하는 등 범죄예방 21건·청소년 비위 33건·생활민원 649건 등 각종 사건·사고에 선제 대응했다. 범죄수사 목적의 영상제공은 1만2천974건에 달해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육아맘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22일 개관했다.

“육아에 필요한 모든 것 제공”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지상 2층 규모

진천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지역 육아맘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22일 개관했다.

덕산읍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지원센터는 모두 35억5000만원이 투입돼 지상 2층 998.04㎡ 규

모로 건립됐다.

특히 장난감 도서관, 놀이체험실, 열린 서재, 육아 카페, 다목적 프로그램실, 시간제 보육실, 상담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춰 육아맘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8월부터 온라

인 커뮤니티와 함께 지역 학부모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취향에 맞는 장난감, 도서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원센터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심한 준비를 해 왔다.

지원센터는 (사)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윤비룡)에서 5년간 위탁 운영되며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정양육 지원,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지원센터 광장에서 열린

개관식 행사는 ‘왜 우리아이가 행복해야할까?’라는 주제로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김영희 교수의 온라인 교육을 비롯해 부모자녀 체험, 고교 직업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개관식에 참여한 지역 육아맘 박모(32세)씨는 “혼자 가정보육을 하느라 급한 일이 생겨도 아기를 맡길 곳이 여의치 않았다”며 “저렴한 금액으로 시간제보육이 가능한 지원센터가 인근에 생겨서 매우 기대가 된다”고 크게 반겼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아이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평소의 철학을 바탕으로 생겨진천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보육·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육아 인프라의 큰 축을 담당할 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가정 및 어린이집과의 연계 체계도 구축해 관내 영유아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군 공동 육아 나눔터 설치 공모 선정

사업비 6천만원 확보... 돌봄 공동체로 자리매김

음성군은 여성가족부가 공모한 ‘2020년 공동 육아 나눔터 공간 조성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며 가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을 위해 6천만원 상당의 내부환경 조성 비용과 TV, 방장고 등의 기자재 지원을 받아, 음성을 읍내리 소재 역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내 2층에 조성하고 향후 음성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부지 인근에 2개의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나 키

즈카페, 블록방 등 아동을 위한 문화 공간·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돌봄뿐만 아니라 건전한 놀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문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품앗이 공동체와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마을공동체 돌봄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박재욱 사회복지과장은 “품앗이 공동육아를 위한 공동 육아 나눔터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돌봄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잡한 출입자 관리 간편하게”

음성군, ‘코로나19 안심콜 출입자 관리 서비스’ 도입

음성군은 11일 ‘코로나19 안심콜 출입자 관리 서비스’를 도내 처음으로 군 청사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작성하는 출입자 명부를 개인정보 노출 걱정 없이 행정전화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존 스마트폰을 통한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제출이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시설을 방문

할 때 행정전화로 출입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이다.

군 청사 출입 방문자는 음성군청에서 부여받은 행정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자 발신전화번호와 출입시간이 4주간 보관되고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군은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QR코드 사용 대신 쉽게 방문기록이 남는데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나 허위 전화번호를 작성하는 문

제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기 대장을 작성할 때 필기구를 돌려쓰는 것으로 인한 위생 감염 위험 역시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 설치 지연으로 민원인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심콜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향후 주민호응도 등을 고려해 공용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다중이용시설에도 해당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편의성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진천군과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진천상공회의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편집고문주필 김춘길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진천군 취약계층 돕기 ‘맞손’

사회복지협의회·진천상공회의소와 지원 협약

진천군이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3일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영)·진천상공회의소(회장 왕용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기섭 진천군수와 양단체 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천군은 복지사가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사항 지원하기로 했으며, 사회복지협의회는 취약계층에 대한 식사·생활·주거·의료 지원하고 민·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관내 기업의 기부물품 지원 업체 발굴과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통해 기부문화 정착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송기섭 군수는 “지역의 복지와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주시고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을 함께 해주시는 양단체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시 ‘LED바닥신호등’ 시범 운영

교통약자 보행 안전 확보

충주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경고개로 횡단보도에 LED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LED바닥신호등’은 한국교통

안전공단 ‘우리 동네 교통 개선사업’을 지원받아 진행된 사업이며,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 패널을 설치해 만든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바닥의 LED 패널도 동시에 초록색

으로 변해 보행자들이 보행신호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현시대의 맞춤형으로 스마트폰 폰에 푹 빠져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는 보행자(스마트폰 좀비)와 어린이, 노약자 등에게 최선의 교통시설로 평가받고 있으며,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통안전 장치로 알려졌다.

10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엔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개롱센터, CJ수원반곡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농협농업,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낙산,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부로, CJ유통(중평점), 송림푸드, 청주유통, 예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관(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엘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불어, (주)피아씨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썸플레이스, 첨맛식품, 리온엘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흥덕기초푸드뱅크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마늘보쌈, 설악주요령, 좋은아침, (주)계기씨푸드, 명동보리밭, 삼육유유서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허 청주대점
- 청주사랑나눔푸드뱅크 참조은유통, 델리스(분평동), 백설유통, 홀몰러

- 스익스플러스, 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뜨(개신점), 파리바게뜨(북대점), 바우어, 좋은아침(북대점), 두레주르(비하계통점), 단킨도너츠(강서점), 팡스팡스, 롤링핀(지월시티점), 이츠굿베이커리, 금관마트, 동청주오뚜기, 초이스베이커리, 플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바게뜨(가경대우), 정도너츠, 바로구은빵, 도담영농조합법인, 청풍명월, 명성물류, 머거버식품, 자연솔푸드, 푸드클로리, 한솔, 비전상사, 태성운수, 도담, 등고개농장, 제훈유통, 장수유통,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관(주)
- 청주드림푸드뱅크 파리바게뜨(원평점, 분평우성점, 금천부영점, 산남점, 농협하나로점, 용암효성점, 용암현대점, 건영점, 뉴타운점, 올랑칸타빌점, 올랑점, 개신점), 수안골 영광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등, 용암서문우등, (주)떡과풍경, (주)민영, 김대현 살이키리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두레주르 율랑점

- 청주새영푸드뱅크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게뜨쌍용점, 두레주르한라점, 두레주르산업단지점, 기분좋은날,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정출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찰떡궁합, 광주기독교서점, 전원푸드락, 낙원떡방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두레주르 금천점지점, 파리바게뜨 분평점, 한솔 제2농장, 공천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두레주르 금천뉴타운, 따베오 베이커리, 행복8떡집, 유신떡방,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떡이랑, 두레주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안떡일점, 영농조합법인 희어를, 홀프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안점, 천명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획(후서사), (주)월드이십일 에이치규, 자연애연합영농조합법인, 천명, 김가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주주름, 서울우유치즈, 시아스유통, 두레주르 분평점, 목향정교, 금관할인마트 율랑점, 청주특남(주), 무외에뚜와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신과들F&C, 파리바게뜨 오창중앙점

- 중평군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중평점, 케이하우스, 금호솜 불갈비, 서산식품, 좋은아침 율랑점, 파리바게뜨 내수점, 한근우식품, 오뚜기, 단비상사, 단킨도너츠 중평점, 델리칸 중평점, 그린유통, GS25 중평대로점
- 과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과산집곡, 신선나도, 신선촌, 운산식품, 제중당약국, 풀무원, 서미숙, 유인숙, 장국희, 따베오베이커리, 두레주르과산점, 파리바게뜨과산점, 매키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주성베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주르 엘마트점, 구가네 농이보강, 조마루 갑지랑, 독도가든, 행운목, 미개(한정식), 이기화로, 옥천청담로터리클럽, (주)한일푸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두레주르(김홍옥), (주)벤유평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서울우유(보은점), (주)서우농학, CJ나눔재단, 롯데

- 대일(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다농원, 삼원농장, 영양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단킨도너츠(금양), (주)이까지연면, (주)후드원, 김점철소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두레주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로,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백암), 삼육두유, 파리바게뜨(덕산점)
-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파리바게뜨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토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가왕만두떡방, 김수혁, 델리칸(이월점), 에스엔푸드, 자혜식품, 명기떡집, CJ푸드빌, 해마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복한 떡집, 이삭식품, 명기떡집, 생거진식품, 맑은해오름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동식품, 대하유통, 델리칸충주교현점, 떡보

- 의하루, 두레주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와유통, 삼일상회, 서울우유치즈충주대리점, 유원유통, 육사청과, 은혜청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 자미원에프앤지, 충주청과, 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이름청과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유업, 두리메리케, 롯데제과 제천, 박달재씨푸드, 문유통,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태성김치, 푸른촌, 풀이라인, 365할인마트, 크리스크리프제천중앙점, 호수상사
- 단양군푸드뱅크 진천면사랑, 진천S(푸드, 음성CJ, 음성(주)진천, 충주김치나라, 제천푸른촌, 롯데칠성, 일죽청정원, 제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정동, 단양두송식품, 서울우유 단양대리점, 파리바게뜨 단양대리점
- 단양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상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썬데이푸드, 대상청정원

영동군, 노인 일자리 사업 만족도 높아

설문조사 응답자 대부분 만족, 경제적 도움 '삶의 질' 향상

영동군이 추진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고령화농촌사회 복지시책으로 대부분에게 큰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4979명으로 전체인구의 31.4%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군과 (사)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는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안으로 이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는 최근 '2020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다.

이번 설문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 결과 사업참여 노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다. 사업참여로 인해 경제적 도움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은 공익활동형 8개 사업단 1138명 중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

지 한달간 참여만족도 참여효과 등 9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이에 680명(97%)의 참여자가 설문에 응답했다.

또 사회활동 참여동기는 이웃친구권유(38%), 본인관심(33%), 기관소개(13%), 주민자치센터 등 소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이유로는 용돈마련(40%), 생활비마련(27%), 사회활동참여(11%), 친교유지(10%), 여가활동(9%), 건강유지(7%) 등이다.

참여효과로는 경제적 도움(41%), 건강증진(29%), 대인관계 개선(12%), 긍정적인 성격변화(10%), 자기발전 및 성취감(8%)의 순으로 꼽았다.

특히 사업만족도는 매우 만족(22%), 만족(56%), 보통(22%), 사업참여 노인대부분이 높은 만족도를 표명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현행 활동비를 30만 원 이상 상향하고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대해 줄 것을 희망했다.

군과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는 이 사업이 자신감 향상, 소득보전, 건강증진 등을 꾀하며 보람되고 알찬 노후를 보장하는 순기능이 있기에 지속적으로 추진상황과 참여자의견을 모니터링하며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공식 선포



지난 12일 김재중 옥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옥천군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지난 12일 군 청사 1층 현관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충주시(2017년), 음성군(2018년), 제천시(2020년)에 이어 4번째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재중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아동참여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선 현재 101개 시·군이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하고 있고 옥천군은 지난 9월 25일 전국의 군 단위 지자체 중 4번째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유엔아

동권리협약을 준수해 모든 아동의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10개 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 구현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아동 참여 활성화, 아동권리 홍보와 교육,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등 아동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올 한해 군은 아동 의견을 균형에 적극 반영하는 사업을 펼쳐왔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난 7월 충북도 내 최초로 공립 청산지역 아동센터를 열고, 어린이집 5곳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34%(충북 평균 12%)에 이르렀다.

지역 20곳 초·중·고생을 위한 방역용품 4230세트 전달, 평생학습원 로비 북카페 조성, 원격수업 태블릿 PC 250대를 지원했다.

김재중 군수는 "아동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을 위한 정책은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989년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한 지역사회를 말한다.

영동군민 행복 평생학습도시 구축 '첫발'



영동군은 11일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 현판을 전달했다.

영동군이 100세 시대에 맞춰 각 계각층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기반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역의 높은 학구열을 지역 발전 원동력으로 삼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군민 행복감과 삶의

질을 높여려는 군의 의지가 하나하나 표출되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군은 11일 영

동군청 상황실에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과 기관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며, 군민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아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향상, 지역복지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군은 이후 센터별로 학습매니저를 배치하고, 주민 주도의 다양한 컨텐츠를 운영해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옥천 취약계층 아동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드림스타트, 위기가동 주거 보수지원사업 준공

옥천군은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부자가구인 A(50) 씨의 가정을 기초수급자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에 위기가동 주거보수지원사업 신청했다.

A씨는 안남면에서 14세 아들과

함께 외부 휴식, 재래식 화장실, 아궁이 난방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부터 당뇨로 건강이 악화되어 아들이 A씨의 간호를 맡아오고 있었다.

이에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에서는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말 까지 주거보수사업으로 A씨의 주택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여 지난 2일 준공을 완료했다.

이번 보수지원사업은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와 후원자들이 3천 만 원을 지원해 벽체 단열시공 보수공사, 내부 수세식 화장실 신축 공사, 기름보일러 등을 설치했다.

또한, 가족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불박이장, 썩크대, 냉장고, 전자렌지와 자녀를 위해 의류, 책상, 컴퓨터 등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복지과 강호연 과장은 "큰 추위가 오기 전 위기가동 주거보수지원사업이 마무리 되어 다행이며, 구세군자선냄비 본부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괴산 '2021 돌봄 공동체 지원' 공모 선정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3곳 7500만원 지원

괴산군은 여성가족부의 '2021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적돌봄 서비스 한

계를 보완한 지역 맞춤형 틈새 돌봄지원사업으로, 전국 13개 지역 운영기관이 선정됐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

한 국비 3500만원과 군비를 포함, 7500만원을 들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3곳 돌봄 공동체를 지원한다.

군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컨설팅, 공동체 이해교육 등으로 돌봄 공동체 역량을 강화한다.

감물돌봄(괴산달내마을공동

체), 하늘지기퓨터, 청천염마랑 등 돌봄공동체와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미선 군 주민복지과장은 "주민들이 공동육아로 양육 부담을 덜고 마을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군 희망 나눔 냉장고 개소에 참석한 기관·사회단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괴산군 '희망 나눔 냉장고' 개소

자율기부·취식으로 기부문화 확산

괴산군은 지난달 23일 괴산읍 자정복지센터에서 이차영 괴산군수를 비롯해 괴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괴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나눔 냉장고' 개소

식을 열었다.

'희망나눔 냉장고' 사업은 군민이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자율 기부, 취식 냉장고를 운영해 기부문화 확산과 군 복지사업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희망나눔 냉장고'는 지난 3월

부터 군민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급여의 일정 부분을 반납한 이차영 군수의 후원금과 괴산사랑 1인1계좌 갖기 운동의 후원 적립금을 통해 마련됐다.

이날 개소식 행사를 전후해 괴산읍 리우회(회장 황길성)에서 희망나눔 냉장고 운영을 위해 50만 원을 기부했으며 유화준 괴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은 괴산사랑 1인1계좌에 100만 원을 기부했다.

또 신동은 괴산군의회 의장과 안미선 의원은 저소득가구를 위해 고춧가루와 화장지를 후원했으며 이종관 괴산읍 기곡리 이장, 변형수 괴산읍 동부3리 이장, 진평건설(대표 최경환), 한울재가복지센터(센터장 황봉하), 주성마트(대표 김명자), 운산식품(대표 이인숙), 괴산농협(조합장 김음식) 등과 후원자들이 쌀, 음료를, 라면, 단백질음료, 국수 등 식료품과 치약, 샴푸, 반찬통 등을 후원했다.

'희망나눔 냉장고'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괴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조를 나눠 도우미로 나서며 후원물품을 정리하고 사용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증평군 20여 저소득 가구에 쌀감 제공



증평군이 숲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한 쌀감을 소외계층을 위해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 부산물 활용

증평군이 숲가꾸기사업으로

발생한 산림내 부산물을 쌀감으로 가공해 판매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에 지원하는 행사를 추진

한다.

군은 이번달 13일부터 30일까지 기간제근로자 20여명이 피해목 벌채, 숙아베기 등의 작업을 통해 발생한 임목을 수거해 일정 크기로 가공하고 직접 해당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쌀감은 가구당 2톤 가량으로 총 2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쌀감이 필요한 가구는 농정과 산림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쌀감 나누어주기 행사로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농가 생활불편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계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

본인부담 의료비 인하·긴급 의료기기 비용 지원 등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고 전원 참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 의료비)을 인하여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당초 200→160만 원 초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이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거나 지원범위에 제외되었던 혈관용 스텐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

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 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신속 복지서비스 총력"... 금융권과 '맞손'

19개 은행·금융결제원과 정보 연계망 구축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더욱 신속하게 확인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금융권이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6일 서울 금융결제원 역사 본부에서 19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복지 대상자의 신속한 자격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복지부와 금융기관 간에는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금융정보 연계망이 구축되며, 금융결제원은 연계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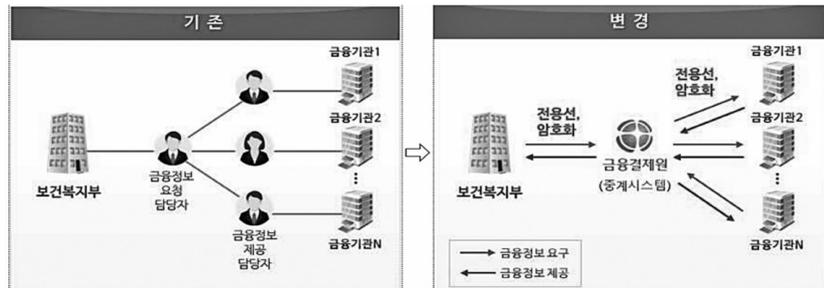
복지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19개 은행과 함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향후 보험, 증권사 등 타 금융기관에도 확대 적용

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과는 금융정보 연계망의 성공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제도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재산 조사를 하는데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에서 금융

정보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금융재산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약 19일로,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조사 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대상자 선정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여 국민들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차별 해소"...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여가부, 임신·출산·양육비 등 4대 지원 방안 마련 사회와 고립 '정착 사각지대' 제로화... 주거 지원도

정부가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 지원

강화, 출산·양육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갑작스런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

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하고 영아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직장·주민센터·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

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강화한다.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한다.

"노인 건강관리 이제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24개 보건소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어르신이 보건소를 통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간 스스로 건강관리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가정 등에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번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해소될 예정이다. 기존의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직원과 어르신이 직접 만나 건강상태 확인, 문진 등을 수행하는 대면 위주였으나,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이고, 건강측정기기,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건소와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은 혈압계·혈당계 등 건강측정기기를 직접 활용해 스

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보건소는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어르신과 소통을 통해 올바른 건강습관을 갖도록 유도해, 어르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내용은 면접 조사를 통해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보건소 담당자가 방문해, 평소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측정기기(혈압계, 혈당계, 스마트밴드(활동량계), 체중계, AI생활스피커 등 5종)를 제공, 매일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실천목표 설정과 이행을 통해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과 면접 조사 시 함께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천목표란, 어르신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첫 면접 조사 시 정한 목표로서, 매일 걷기, 세끼

챙겨 먹기 등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어르신은 제공받은 건강측정기기를 활용 평소 혈압·혈당수치 등을 측정하고,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이 측정한 건강정보를 업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전화와 모바일 앱을 통해 상시적 상담을 수행한다.

최종 면접 조사를 통해 첫 면접 조사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다시 방문해 확인한다.

6개월간 실천목표의 달성 여부와 신체 계측 등을 통해 건강 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이후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목표 등을 다시 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내용을 최종 확정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24개 보건소에 안내했으며, 2일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모집,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비대면 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분석해, 향후 본 사업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안전교육 받는다

유·초 과정 운영 외국인학교·공공도서관 등 22개로 확대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뿐만 아니라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와 공공도서관 등의 종사자도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이 지난 5월 제정된 데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유형을 22개로 늘렸다. 기존에 법률에서 정의한 어린이 이용시설 12개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 위주로 10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12개 유형에 포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 시설 등 외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국제·대안학교, 건물면적 265㎡ 이상 공공도서관 등이 어린이 시설로 추가 지정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법률과 함께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희귀질환 앓는 차상위 계층

구직 수당 받아도 진료비 혜택 유지

난치·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라면 내년부터 지급되는 구직 수당을 받아도 진료비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계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나, 18세 미만 아동은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아도 본인부담감감사액 대상 자격이 유지된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6~64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직 수당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대상 자격

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지만, 이번 특례 조항을 통해 진료비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제정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6.67%에서 6.86%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올린다. 이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 인상률(2.89%)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기존의 장애인 보조기기 중 수요가 많은 수동휠체어를 급여금액 평가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입부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충북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노인학대, 공동체 치안으로 해결해야” 자가격리 해제 후 우울감·불편감 여전

충북지방경찰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학대예방 MOU 노인학대·실종 예방 교육콘텐츠·교육시설 등 지원 협력



충북지방경찰청과 충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 관계자들이 노인학대 및 실종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경찰이 충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노인학대 및 실종 예방을 위해 손을 잡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청내 5층 소회의실에서 충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충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노인을 위한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건강생활지원·노년사회화교육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17개소가 모여 만든 협회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범죄와 치

매노인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업무 수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에 나선다. 이와 함께 경찰은 노인학대 및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복지관은 교육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용환 청장은 “노인학대 등의 문제는 지역 유관기관 함께 하는 공동체 치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노인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영상제작

군내 학령기·청소년기 아동 대상 비대면 영상 배포 10분 내외 분량... 총 20개 초중고 교육자료로 활용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비대면 장애인식개선 교육 일환으로 콘텐츠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3일 이 복지관에 따르면 옥천군내 학령기,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비대면 장애인식개선 교육 일환인 콘텐츠 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복지관은 기존에는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였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콘텐츠 영상 제작으로 기획하게 됐다.

이 콘텐츠 구성은 소수 지역주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묻는 내용을 시작으로 후천적 교통

사고로 인해 지체장애 1급 박소라(가명 옥천거주 40) 씨의 일상 이 영상에 담겨질 예정이다.

옥천군장애인보조작업장에서 생산된 장애인생산물(쿠키)의 제조과정을 촬영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보조작업장 근로자들의 근로 활동 모습을 끝으로 총 10분 내외 분량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옥천교육청 협조로 16일부터 3일간 옥천군내 총 20개 초·중·고등학교로 콘텐츠가 배포되어 장애인식개선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또 지역농산물(안남면 우리팍)로 만든 장애인생산물(우리팍 쿠키)이 각 학교 학생 4030명에게 배포되면서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될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된 콘텐츠는 기존 전문교육 영상과의 차별성을 위해 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모습과 장소가 영상에 소개되면서 교육자료 활용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는 등 소수의견이 일반화 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역주민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서 안정된 노후 보내세요”

새단장 후 지난달 이전 개관식 공간협소 해소 위해 확장 이전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진상) 정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지난달 30일 이전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상천 시장을 비롯해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 임태영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 사회복지회 관계자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0월 30일 이전 개관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및 관내 사회복지법인 단체장과 시설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존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

노후화와 이용자 증가에 따른 공간협소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시는 하나웨딩프라자 건물을 매

입 후 올해 정비 공사를 통해 지상5층 연면적 3203.2㎡ 규모의 건물로 확장 이전했다.

이번 개관식은 전문 방역업체에서 건물 전체를 소독 후 실시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행사를 이원생중계 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이날 이 시장은 “어르신 모두가 행복을 증진하는 장소가 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

충북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앱 ‘폴보스’ 개발

진창희 경위·충북대 소프트웨어학과 학생 6명 앱 완성 전국 최초... 상업 광고 없이 무료 이용, 정보수집도 안해

충북지방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예방적 경찰활동을 위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애플리케이션 ‘폴보스’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폴보스는 미등록된 번호와 장시간 통화를 계속하면 경고메시지와 진동으로 알람이 울리고, 보호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앱이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수신하면 스미싱 주의 알람도 울린다.

폴보스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웹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상업 광고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도 하지 않는다. 앱 개발에는 충북경찰청 진창

희 경위와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학생 6명이 참여했다. 경찰의 아이디어와 총괄기획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앱을 완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예방을 위해 앱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북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7년 584건, 2018년 722건, 2019년 976건, 올해 10월까지 803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충주시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50대 치료 가장 시급... 주변시선 걱정 상당시간 지속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상태를 경험한 사람은 격리 해제 이후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당한 우울감을 느끼며 자가격리를 겪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상당보건소(소장 김혜련)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충주시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손정우)에서는 올해 충주시 상당구 거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213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가격리 동안

사했다. 그 결과 자가 격리 기간 동안 20.7%(44명)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우울 상태를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격리 해제 후 상당 시간이 지난 최근 시점의 우울감 결과로, 10.8%(23명)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우울 상태를 보여 자가 격리 해제 이후에도 우울 상태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군으로 분류되어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연령대별로 볼 때 50대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 격리 해제 후에도 특히 50대 대상자에 대한 심리 지원이 좀 더 필요함으로 조사됐다.

한편, 격리가 해제되고 상당 시간이 지난 최근 시점에서의 주변인의 시선에 대한 불편감 조사에서도 ‘불편하다’로 응답한 경우는 21.1%(45명)였다.

특히 최근 시점에도 ‘자신이 혹은 시 코르나19에 감염되어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16.4%(35명)로 자가격리자의 주변인 시선에 대한 걱정과 감염에 대한 걱정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결과로 집계됐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비록 자가격리자 중 이번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상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는 한계는 있으나, 이번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통해 자가격리에서 해제가 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시사되는바,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지원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와 충북노인복지협회는 노인복지 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노인복지봉사자 역량강화 업무협약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충북노인복지협회 온라인 법정교육 지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는 4일 충북노인복지협회(회장 박은영)와 노인복지 봉사자

들의 역량강화와 노인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례 시상식

사회서비스·문화예술분야 등 7건 우수사례 선정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이하 협의회)는 19일 ‘2020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은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적인 참여 및 사회공헌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참여자,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2주

간 충북 권역에 걸쳐 34건의 우수사례를 공모했으며, 심의를 거쳐 최우수상 임근자(사회서비스분야), 우수상 유자균(행정지원분야), 김영숙(문화예술분야), 장려상 최영숙(사회서비스분야), 연영숙(문화예술분야), 이달원(교육연구분야), 특별상 한국여성지도자연합청주지회(상담멘토링분야)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김영석 회장은 “우수사례 발굴 장이

야말로 사회공헌에 헌신하는 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비영리기관들의 상생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 및 일자리 활성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3년 이상의 전문경력 또는 자격증을 소유한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전문 인력들이 사회적기업, 비영리기관 등에서 자신의 지식 및 경력을 활용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는 357명, 참여기관은 115곳이다.

▶관련기사 6면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2020년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우수사례)

‘너무 몰랐던 내 자신의 행복, 깨달음’

2016년 문구용품 가게를 하고 있었다. 가게 장사는 잘 안되고 개인회생에서 파산 신청까지 진행하는 상황이었지만, 가게에 드나드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속으로는 항상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함께하는사랑발문화지역아동센터와 인연이 닿아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 계속 봉사 활동을 하다 보니 센터장님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을 하면 더욱 좋겠다고 소개를 해주셔서 4년 동안 센터에서 신중년 사회

공헌활동지원사업지원사업의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다. 내 생전 접해보지 못한 일이었기에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전 내 몸과 마음이 적응돼가고 있다.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과 음식을 조물조물 만들 때마다 뿌듯하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 있으며 행복하기까지 하다. 오늘은 어떻게 학습을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고, 잘 지내볼까라는 기대도 하며 또 하루는 어떤 녀석이 말을 피우려 하는 걱정도 된다. 그래도 항상 얼굴에 웃음 가득한 하루를 보

낼 생각을 하면 기쁘고 설렌다.

아동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함께 있어야 더욱 빛나고 아름답다는 것, 서로 의지가 되고 힘든 순간도 이겨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기회가 된다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지원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여할 계획이며, 사랑이 필요한 아동들을 잘 보듬어 주고 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다.

■ 최우수생(임근자) / 만 56세



함께하는사랑발문화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되는 요리 프로그램.

‘변화된 나의 인생 2막’



참여기관에서 필요한 공문·문서 작성 활동.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기쁨을 주고받으며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까?

정든 직장을 정리하고 쉽지 일상이 되기 싫어서 변화를 위해 평생교육원에서 강좌를 수강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어디엔가 있을 새로운 나의 자리를 기대하고 있었다. 뜬구름 같은 생각만 가득할 때 우연히 지인을 따라 대한어머니회 총부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하게 됐다. 사무실에 일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컴퓨터만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던 회장님의 말씀이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떠올랐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받은 컴퓨터 교육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

각이 들었다. 다음날 다시 회장님을 뵈었을 때 감사하게도 같이 봉사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일 좀 해달라고 하시며 밝은 웃음으로 청해주셨다. 그렇게 대한어머니회 총부연합회와 인연을 맺게 됐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과 만나게 되면서 나는 새로운 자리를 찾게 됐다. 나는 하루에 4시간씩 참여기관에서 필요한 공문이나 문서를 작성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제 제법 시간이 지나 웬만한 일들은 손에 익었고, 함께 해주는 동료들과 선생님들과도 친분을 쌓게 되면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을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나의 노력이 전해질지 바라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서적도 탐독하며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더 많은 도움을 드려 주고 있다.

어디선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원동력이 되는지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묵묵하게 나의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려고 한다. 나의 인생 2막의 동반자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지원사업 고맙습니다.

■ 우수생(유자균) / 만 59세

‘서원실버 아코스타, CORONA와 동행하다’



서원실버 아코디언반 24회원들의 공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인의 권유로 내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된 시기는 작년부터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 말년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한 삶을 도와주며 사회에 봉사하는 일이 내 생애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금은 이것이 잘한 일이라고 만족하고 있다.

아코디언반 24회원들은 아코디언은

약기 중에서 제일 다루기 어려우니 코로나를 대비해서 소규모로 강사를 모시고 배워야겠다는 회원들이 많아 이 방법을 연구했다.

아코디언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서원복지회관에 등록된 회원들 중 프로그램에 희망하는 회원 가운데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하고 젊은 회원들을 선발했다.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개인 지도 그리고 기초와 중급반, 수준별로 반 편성을 하고 가끔적이면 재미있게 흥미 유발이 가능한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노력해왔다.

그간의 활동으로 인해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대인관계의 폭도 넓어졌으며 새 희망과 보람을 찾아가는 인생으로 나의 삶의 이정표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급년부터는 외천리에서 회원들을 모집해 아코디언 수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이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치니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도 인생을 많이 배우고 생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것 같다.

■ 장력성(연영숙) / 만 70세

‘복화술로 나누는 황혼인생’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펼치는 복화술 공연.

고교시절 웅변대회에서 스승이신 선생님께서 이다음에 직업을 선택한다면 아나운서나 성우를 하면 대성할 수 있다는 조언 한 말씀에 큰 힘을 얻어, 성우가 되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갔고, 꿈에 그리던 KBS 성우로 우뚝 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의 내가 복화술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마음의 힐링을 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고, 사회공헌 참여기관에서 참여자로 뛰어들었다.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잘 했다고 생각한다.

민요를 하는 가수들과 복화술을 하는 나와 한 팀이 돼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다니면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미워져 지금도 시급치를 안 먹는다는 시어머니 사연, 초근초피로 연명하며 자식들 잘 키워 놓았더니 바쁘다고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기다리는 사연 등의 공연을 했다.

복화술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공감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면 어르신들도 내게 마음을 열어 주시며 복화술 인형을 향해 동지의식이 형성돼 기다리신다.

사회공헌을 통해서 작지만 나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선택한 복화술을 통해 소중한 나의 인생 속, 나의 시간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음에 감사하다.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을 지속하리라 다짐해 본다.

■ 우수생(김영숙) / 만 68세

‘멀어도 가까이’



청주바살합 '코로나19와 함께하며 이기는 노인 건강'

코로나 시국에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얻은 답은 오직 한 길 40여년을 2세 교육에서 쌓아온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일과 취미 속에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것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었다. 참여기관인 바르게살기운동청주시협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개인적인 연구 활동을 본인의 연구를 포함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동적 복지 연구 활동을 하기로 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으며 나

와 비슷한 경력을 갖춘 동호회원들로 바르게살기운동청주시협의회가 참여 기관으로 청주사랑모임(이하 청사모)의 소조직을 만들고, 본인과 참여자 5명이 참여했다. 나의 연구 주제는 '코로나 19와 함께하며 이기는 노인 건강'으로 결정했다.

연구 활동의 활성화와 대비를 위해 청주시 온라인 무료정보화 교육인 엑셀, 파워포인트, 블로그&카페 만들기, 동영상 제작 교육에 참여해 배운 기술을 활용해 연구 관련 내용을 제작해 지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배우고

나누는 연구 활동을 했다.

이러한 새로운 삶에 대한 자신의 꿈을 풀어준 곳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다. 개인과 사회를 위한 부단한 연찬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싶고 자아실현도 이루고 싶다. 본인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일련의 연구 활동이 코로나 정국에서 나에게 큰 버팀목이 됐는데 가족, 이웃, 사회 전반에는 더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래본다.

■ 장력성(이달원) / 만 65세

‘신중년의 새로운 가을이 왔다’



자격증 취득으로 진행된 어르신 따뜻한 한 끼 식사 대접하기.

어느덧 나의 인생도 신중년의 삶으로 접어들었는지 아득한 옛날의 일들이 종종 스쳐 지나간다. 아련한 시절, 빵에 대한 그리움으로 제빵 기술을 배우고 점점 실력이 늘어 이제는 제빵 기술 자격증도 취득했고 그 기술과 사랑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해 동네 주민들에게 빵을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공헌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 만든 빵을 나누어 주다보니 상담도 해야 하는 때가 있다. 이 지역은 특별히 독거노인이 많이 있고, 고물을 주위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들과 함께하다 보니 빵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맛있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한식, 중식, 일식도 모두 배워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됐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왔다. 우연히 청주사랑나눔기초푸드뱅크도 알게 돼 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일도 함께 하게 됐다. 사회공헌과 푸드뱅크 봉사를 몇 년 하다 보니 동네의 모든 이웃의 크고 작은 일들을 알게 됐고, 이제는 우리 집이 거의 매일 모여 이야기

하는 방앗간이 됐다. 힘들어도 너무 행복하다. 이제는 이웃 간에 사랑하는 마음도 싹트고 일상처럼 길거리도 청소하며, 어디에 고물이 있는지 정보도 알려주는 정말 살맛나는 동네가 됐다.

앞으로도 남은 나의 삶은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이웃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다. 봉사하며 섬기는 일들이 이 사회에 더욱더 도미노 현상처럼 확대되기를 바란다. 받으면서 또 나누는 서로 행복해지는 이 마법 같은 일들이 더욱 많이 지속되길 기도한다.

■ 장력성(최영숙) / 만 59세

‘자존감 회복 위한 경험치료실습 워크숍’



내면의 문제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입화치료·자존감 회복 경험치료실습 워크숍.

한국여성지도자연합청주시지회는 현재 17명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사무실을 남일면 은행리로 옮기면서 마을 꽃길 조성과 압화치료, 자존감 회복하기 위한 경험치료실습 워크숍 등 내적인 면에 중점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재정상담, 행정상담, 건강상담 등 다양한 문제를 상담해오던 우리 회원들이 2회의 워크숍을 통해 내면의 문제에 눈을 돌리게 됐다.

예쁜 꽃을 따서 말리고, 염색하고, 매만지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있고, 많은 꽃들을 세심하게 불다 보면 무한정 늘어나는 꽃송이가 욕심이 많은 나 자신을 보는 것 같다.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이제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회원들은 많은 활력을 찾게 됐다. 3년 전엔 회원이 8명에 불과했는데 17명으로 늘어난 것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지원사업 덕분이었다.

기관에서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활동 분야는 다양하지만 우리는 3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사업, 복지증진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었다. 회원들이

나의 팀이 돼 역할 분담을 하며 봉사를 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고마움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회원들 모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총정복도시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준 덕분이 아닐까 생각해보자. 100세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회공헌 활동은 단단한 빨간 사과와 같은 귀한 열매라는 생각이다.

■ 특별생(한국여성지도자연합청주시회)

복지광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



노 유 진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올 한해에도 여전히 아동학대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여러 사건들을 접하고 있다.

약 5개월에 걸쳐 세 차례나 아동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결국 사망에 이른 14개월 영아사망사건과 3차례의 신고접수가 있었음에도 결국 보호자가 없이 거센 불길을 피하지 못한 인천 '라면 화재 사건' 형제 사건은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최근 5년간 아동

학대 건수는 2015년 11,715건,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 2019년 30,04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3,883건(79.5%)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2,277건(7.6%), 1,371건(4.6%), 139건(0.5%)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 22,700건(75.6%),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기타 364건(1.2%) 순으로 확인되었다.

통계를 통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2019년 1월 보건복지부 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였다.

정부는 사회 전반의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적극적인 신고 문화 형성,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굴 및 관리,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사회안전망 내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총 3개 분야의 아

동학대 대응 정책을 내세웠다.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정 의무교육 확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추진으로 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현장조사 공공화와 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자체에 순차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긴 하지만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 다수이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곳이라도 신규업무에 대한 이해와 아동학대 현장의 아동학대전담 종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와 교육,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앞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학대 대응에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민간이 충분한 상호 유기적 소통체계를 갖추며 지역사회 내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기도 한다.

국네이버스에서 연구한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2018)'에 따르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원의 월평균 최대 사례 수 적정 기준은 20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필자가 몸담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만 하더라도

상담원 1인당 40여건 이상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전담기관으로서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고 상담원 수를 증원하여 상담원 1인당 25가정을 유지할 있도록 자원과 업무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정부의 정책과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사건으로 전국은 떠들썩해지고, 돌봄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사건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아동보호 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체성을 갖춘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비스전담기관으로써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상담을 실시하며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현재까지의 아동보호정책과 제도 마련되기까지 많은 아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따른 것이라 말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눈물과 희생 없이 안전과 보호,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해본다.

정신건강

자신에게 보내는 마음의 위로



연 현 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코로나19로 인하여 답답하고 지겹고 우울하기만 한 듯 하여도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새 늦가을 11월입니다.

11월에 들어서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다.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자살 소식입니다.

개그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유희열씨가 진행하는 음악프로그램에서 맛깔 나는 보조진행은 물론 퀴즈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어 매우 호감 있었던 개그우먼 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 게다가 어머니와 동반 자살이라니.....

고(故) 박지선씨는 평소 햇빛에 피부 알레르기가 있다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 했었고, 그를 개그나 기타 소재로도 상황에 알맞게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였나 봅니다.

게다가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연예계 풍토 등과 항상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더욱 힘들게 하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평소 저는 피부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별 생각이 없다가도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체크도 해보지 않고 그렇다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확신하게 되죠.

그러다 올 초 어느 날 다리에 무언가 붉은 반점을 발견하게 되었죠. "허걱 이거 뭐지?"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를 지금도 받고 있죠. 확인할 수 없는 피부염증. "확인할 수 없는? 그렇다면 치료도 잘 안되는..?"

처음에는 약을 먹고 피부연고제를 바르면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약을 먹어도, 피부 연고제를 발라도 호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식이가 달라진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옷 입는 것도, 바디워시나 바다리션을 바르는 것, 먹는 것 등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예민해 졌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스스로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붉은 반점은 다리에 발생을 하여 크게 눈에 띄지 않는데도 아침에 일어나 호전 상태를 살핍니다.

상태가 좋아졌으면 그 날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나 나 빠졌거나 하면 그 날은 기분이 좋지 않게 시작하곤 합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도대체 어제 뭘 먹은 거야? 도대체 어제 어떤 옷을 입은 거지?" 하루 종일 자신을 자책하며 감정이 기복이 생기곤 합니다.

고(故) 박지선씨의 소식을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감정이 북이 있는데 고(故) 박지선씨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남들이 해주는 소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을 욕시 아프게 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는 모두 주관적입니다.

어느 고통은 크고 어느 고통은 작다고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위로한답시고 "남들은 ㅇㅇㅇ이여도 잘 살고 있는데 너무 겨우 이것가지고?"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지금 내 손가락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프게 하는 법이죠.

연 초 코로나-19가 외국에서 발생하고 우리나라에 몇 명이 확진이 되어도 금방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10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이 날지, 끝나는 할 것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게 이 시간을 버티고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져서 아예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강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죠. 자신의 마음을 잘 바라봐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시간이 흘러 2020년도 1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연말은 더더욱 타인은 물론 자신도 돌보기 어렵게 바쁜 시기이죠.

그러니 오늘 봐주세요, 마음을, 그리고 가짜 마음으로 웃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짜 마음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마음을 봐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현장의 목소리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어른들이 되기를



이 승 준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 사회복지사

내가 사회복지라는 분야에서 일하게 된지 이제 대충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사회인 흉내를 낼 수 있게 된 것 같지만 나는 아직도 현장실습을 했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대학시절 보육원에서 실습을 했을 때, 그곳에 계시던 생활지도원 선생님께서 아동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으며 그렇게 때문에 보육원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나는 아동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한 이후 우연하게

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즐거운 기억들도 많았지만 항상 그 당시 실습할 때 들었던 말이 기억 한켠에 꾸준히 남아있었다. 그래서 기억이 이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아동복지관으로 이직을 했을 당시에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인해 입사하고 한참동안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여러 가지 만들기 키트를 나누어 주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만 아이들을 간접적으로 만나야만 했다.

지금은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어 복지관에 제한적으로 다시 아이들이 오고 있지만 나는 어린 아이들이 복지관에 마스크를 쓰고 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 칸이 시리곤 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에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바깥 나들이 보다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지금 시대의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뒷세대 어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느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 위치한 시장에서 각종 야생동물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축 및 유통을 하다 질병들이 단기간에 영향을 미쳐 변종이 되어 퍼져나갔다는 설이 현재 유력하다.

결국은 어른들의 무차별적인 이윤 추구로 인하여 벌어진 환경재앙이라는 뜻이며 어른들의 잘못으로 죄없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지자체의 95%가 1회용품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6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자체중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허용한 지자체는 219곳에 달한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10곳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정한 30초 이상 세척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핑계로 무분별하게 1회용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적인 재앙과 더불어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대 속 어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환경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밖에 없는 것 같다.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대규모의 생산과 소비활동으로 유지되는 현 자본주의 제도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구 환경과 공존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연환경의 보존이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동복지현장에서도 중요

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나는 아동복지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아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으며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동복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고 연설했던 일이 있었다.

나는 한국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툰베리처럼 환경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그리고 이번엔 코로나19 까지 환경으로 인한 여러 재앙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벌어질 때마다 결국 책임을 져야 하는건 우리 어른들 세대라고 생각한다.

당장 거창한 행동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명 한명의 사람들이 당장 아이들을 위해서 쓰레기를 덜 버리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책임과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사업 안내

법률상담서비스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청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복지"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

원만한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청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상담터



법무부



충청북도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라혜영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 확인방법과 손해배상청구

Q) 저는 19.3.1.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현재 전세가 거의 없고 있다라고 전세가가가 예년의 거의 2배나 폭등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임대인은 본인이 실거주하겠다고 갱신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해당 임차목적물이 아파트로 이사올 이유가 전혀 없고 단지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차임을 최대 5% 이내로 증액해야 한다는 제한 때문에 실거주 한다며 갱신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직접 거주가 허위일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워 둔 경우 주택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 7. 3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는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차임 인상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실거주한다고 하여 갱신거절 후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허가해 공실로 비워둔 경우입니다.

우선 전자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갱신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전입세

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 또는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시행되어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다른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경우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11.1.부터 충북지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주택·상가건물 관련한 임대차계약 관련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봉사단

나우리회·스마일봉사단 사랑의 연탄나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식) 소속 나우리회(회장 신홍식) 및 스마일봉사단(회장 최용순)은 지난 11월 6일 청주시 상당

구 일원에서 취약계층 가구(상당구청 의뢰 5가구, 각 500정)를 대상으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나우리회와 스마일봉사단은 각 2010년, 2014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나우리회 신홍식 회장은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생활이 더욱 힘들어진 소외된 이웃들이 더울수록 사랑의 연탄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 소소한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 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 (cbssn@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실외 1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2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여기선 반드시 착용하세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Table with 5 columns: 구분, 1단계(생활방역),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It details mask requirements for different stages of social distancing.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조업·시설허가 신고면적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총합소매업·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위의 시설·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

복지정보 제공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재가장애인 태백고용사업

- 신청대상: - 청주시 거주 장애인 및 장애인가정 - 19세(고등학교졸업예정자)이상 - 장소 -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 한울타리 작업장 - 재가장애인 가정 내
모집기간: 상시모집(*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문의: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043-252-9720)
참고: www.woorinet.or.kr

[사피엔스4.0]국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사다리자이퍼 모집안내

- 신청자격: 만10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모집인원: 연간 5명(연차 별 확대 예정)
모집기간: 상시 모집
지원내용: 1인당 매월 20만원 지원(협의 후 확정)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sapiens.or.kr)신청서 다운 및 이메일(ocean@sapiens.or.kr) 제출
문의: 사피엔스4.0(070-7005-6077)

[아산사회복지재단]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신청기간: 연중상시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문의: 02-3010-2566,2585

[사랑의열매&마중물]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참여자 & 사업체 모집

- 신청 및 모집기간: 2020.2.10.(월) ~ 2020.12.20.(일)
대상: - 훈련생: 만 15세 이상의 중증정신장애인으로 취업의사가 있는 당사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함께 여는 자동문' 무료자문ون설치 캠페인 공고

- 접수기간: 상시접수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문의: 1899-7081 또는 coad@coaddoor.com
참고: https://www.bokji.net

[희망나눔 주주연대]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재활치료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다자녀 가정의 성인 가장(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신청
심사 및 선정절차: 1차 서류 심사(검토) 후 선정자에 한해 2차 추가서류 안내 및 가정방문
문의: 희망나눔 주주연대(02-3789-2555) / hope@hopeon.or.kr
참고: https://www.hopeon.or.kr/html/index

[밀알복지재단]2020년 국내장애 및 저소득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지원내용: 장애영유아 의료비, 장애아동 결연의료비, 장애아동 수술비, 안면장애인 수술비, 위기가정 지원
기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중위소득 80% 미만)
신청기간: 2020.3.1.(일) ~ 2020.12.31.(목)
신청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 밀알복지재단 법인메일로 상시접수
제출서류: 홈페이지 참조(http://www.miral.org)
문의: 국내사업부 지원사업 담당자(070-7462-9135)

[여송사회복지재단]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 신청양식 확인- 이메일 발송
신청기간: 수시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5,500원)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문의: 여송사회복지재단 사무국 02-553-3488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 사업

- 지원내용: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 있는 가구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0.5.27.(수) ~ 12.31.(목)까지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자원 봉사자 모집

- ▶ 행정업무 보조
관리센터: 굿네이버스 충북본부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288-9601
▶ 밀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835-4288
▶ 중증장애인 버킷리스트 봉사
관리센터: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845-4544
▶ 이마용 봉사
관리센터: 해광의료재단 충북병원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260-8200

- ▶ 가정방문 심리상담 봉사
관리센터: 청주상당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288-3060
▶ 중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남이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70-4149-2345
▶ 저소득 가정 11 멘토링
관리센터: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857-5960
▶ 재활프로그램(공예 등) 보조
관리센터: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291-0199

-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267-4590
▶ 아동학대예방 인형극 공연 봉사
관리센터: 충북남부아동전문기관
활동기간: 11.1 ~ 12.31
전화번호: 043-731-3685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복/지/만/평

장벽

이창신 www.bokmani.com



청각장애인에겐 마스크도 언어의 장벽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겐 평균필름도 장벽입니다.



저각장애인에겐 코로나 상황이 장벽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잘 모르고 세운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벽 허물기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